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대에 들어서는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는 올전세 또는 적정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8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한 다양한 임대조건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고 집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다.

전주 첫 뉴스테이 아파트 상륙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 856가구 규모… 내일 견본주택 개관

광신주택은 오는 25일 전주 첫 뉴-스테이 아파트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1층 ~ 지상 최고 27층, 8개 동, 전용면적 75~84㎡ 총 856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면적 △75㎡ 279가구 △81㎡ 142가구 △84㎡ 435가구 등 전 가구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00% 중소형으로 이뤄진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에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갈수록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거혁신정책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세대주 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뉴-스테이에 거주하는 입차인은 올전세 또는 적정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8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다양한 임대조건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고 집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다.

또,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높은 주택품질과 다양한 주거 서비스로 주거의 질을 높였다는 점 등이 뉴-스테이가 실수요자들에게 각광받는 요인들이다.

전주 평화 광신프로그레스는 모악산과 학산이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탁월해 조망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평화생태공원, 완산공원 등이 인접하고 있어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교통도 편리하다. 전북도청 및 전주산업단지, KTX전주역, 전주버스터미널까지 차량으로 20분 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지녀 순천완주고속도로, 21번, 37번 국도를 통해 김제, 진안으로 이동도 용이하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예정)으로 호남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대정초, 지곡초, 평화중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해 가까우며 반경 400m 내에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고, 전주시립도서관이 가깝다. 생활편의시설로는 단지 인근에 이마트에브리데이, 하나로마트, 롯데씨네마 등이 있어 편리한 쇼핑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전주평화병원, 으뜸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오는 25일 오픈알에 바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2일, 당첨자 동·호지정 은 7월 4일~ 6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10월 예정이다.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7-3번지에 위치하며 오픈시간은 오전 11시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063)261-0322로 문의할 수 있다.

/신광영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미얀마 연수생 사업현장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23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중인 『미얀마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에 참여중인 연수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현장을 안내했다.

미얀마 네피도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담당하는 연수생들은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하여 국내 간척현황과 방조제 축조과정 등을 견학하였다.

이후 신시33센터로 자리를 옮겨 새만금 내측의 환경, 해양, 홍수예·경보 등 새만금 전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새만금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배수갑문 장비실 등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현장을 둘러본 한 연수생은 "소규모 지역 농업에서부터 대규모 국책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첨단농업기술 적용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얀마 연수생들은 10일간의 일정으로 영산강하구둑, 영암 산이배수갑문, 안성 고삼저수지 등 국내 주요 경지정리사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보건소, 구강건강 캠페인

전북과학대학교와 함께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22일 전북과학대학교와 구강 건강 캠페인을 가졌다. 보건소는 이날 중앙로 만남의 광장에서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과 함께 '6세에 만나는 평생 건강한 친구(구)'라는 주제로 구강 보건의 중요성과 구강 건강 증진 생활 수칙 및 지식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구강체험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검진을 통해 개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입 냄새 측정과 현미경을 통한 구강 내 미생물 검사에 이어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구강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생건강의 첫 걸음인 치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 시켰다."며 "치아는 예부터 오복 중 하나라 할 정도로 평생건강의 필수조건인 만큼 올바른 구강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편의점 '냉장 디저트' 매출 급증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냉장 디저트'가 인기다.

편의점 원두커피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커피와 어울리는 롤케익, 에끌레어 등 디저트들이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저성장으로 '가치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편의점 디저트들의 맛과 품질이 높아지면서 백화점,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만 즐기던 디저트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구입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쁘띠첼'의 '스윗롤'과 '에끌레어', 삼립식품 '카페 스노우'의 '빅 얼치즈케익'과 '빅슈에 바나나'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디저트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지난 달 선보인 쁘띠첼 에끌레어는 출시 한 달 만에 50만개 이상이 팔려나갔다.

이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쁘띠첼 스윗롤'의 출시 첫 달 판매량 4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매출로는 약 10억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출시 초반 월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스타상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CJ제일제당은 에끌레어가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까지 에끌레어로만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다는 각오다.

쁘띠첼 에끌레어는 디저트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정통 에끌레어와 유사한 맛을 구현하면서 1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가성비' 높은 냉장베이커리 제품이다.

/안진수 기자

진로, '하이트 망고링고' 출고

하이트진로의 주류 과일믹스 신제품 '하이트 망고링고'가 전주공장에서 출고됐다.

하이트진로는 23일 오전 전주공장에서 김인규 사장과 손봉수 생산총괄 사장 등 임원 및 공장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망고링고 출고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출고된 물량은 약 5만 상자로 전국 주요 상권의 마트와 주점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망고링고는 천연 망고과즙(2.3%)이 함유된 도수 2.5도의 과일믹스 제품으로, 과일의 맛과 청량감이 어우러져 '맛있고 가볍게 즐기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하이트진로는 새로운 개념의 과일믹스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하이트 맥주 모델인 송중기를 '망고링고' 홍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안진수기자

삼립 '천연효모 통밀식빵' 인기

삼립식품의 '천연효모 로만밀 통밀식빵'이 출시 한달 만에 100만개 이상 판매됐다.

23일 삼립식품에 따르면 삼립의 식빵 제품 중 출시 초 이처럼 인기를 누린 제품은 14년 전 출시해 현재도 월 70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숙(熟)식빵' 후 처음이다.

천연효모 로만밀 통밀식빵은 세계적인 통곡물 전문 브랜드 미국 로만밀사의 건강한 통밀과 호두, 해바라기씨, 아마씨 등 슈퍼푸드가 듬뿍 함유된 건강빵 카테고리 제품이다.

SPC그룹이 서울대와 11년간의 공동 연구로 발굴에 성공한 토종 천연효모(SPC-SNU 70-1)를 적용,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후 매출이 10배 이상 오르며, 단숨에 삼립식품 식빵류 중 매출 1위로 올라섰다.

업계에서도 일반 소매유통에서 프리미엄 곡물빵 제품이 인기를 얻은 것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곡물빵 제품은 가격대가 높아 전문 베이커리에서 주로 판매돼왔으며,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일반 소매유통점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다.

천연효모 로만밀 통밀식빵은 SPC그룹이 개발한 토종 천연효모를 적용, 기존 곡물빵의 거친 식감이 아닌 향과 풍미가 뛰어난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또 가격을 2500원 수준으로 책정, 소매유통점에서 식빵을 구매해온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넘었다.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천연효모에 대한 관심도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립식품은 향후 천연효모 적용제품을 식빵 제품 이외의 전 품목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안진수 기자

익산국토청, 건설폐아스콘 재활용 촉진 업무 협약

아스콘협회, 아스콘업체 등과

익산국토청이 건설현장 폐아스콘을 적극 재활용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3일 아스콘협회, 아스콘업체 등과 '건설폐아스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익산국토청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재활용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순환아스콘협회는 생산업체에 기술개발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스콘업체는 품질관리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해 우수한 아스콘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하대성 익산국토청장은 "폐아스콘의 재활용은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며 "익산국토청은 앞으로 가급적 많은 현장에서 폐아스콘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